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1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으로 처음 펴낸 '신도입문서'가 출간 1달여 만에 1만부가 판매됐다. 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입문서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였나 여실히 보여준다. 부처님의 법(法)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시면서 스스로 의지할 것이며 법(法)을 따르라는 유훈을 남기셨다. 굳건한 믿음은 교리 그 자체를 아는것에서 출발한다. (편집자 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법(法)의 거울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법을 믿으라. 법은 참되고 바르며 열반에 이르게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믿는 것이니라.(장아함경)

법을 들으면 다섯 가지의 공덕이 있느니라.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법을 들어서 그것을 읽고 외울 수 있고, 생각이 삿되게 흐르지 않고, 믿음이 생기며, 진리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느니라. (중일아함경)

나는 이제 믿고 받아들여 즐거이 듣는 자를 위해 설할 것이요, 두려워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자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않으리라. (장아함경)

내 법을 완전히 이해하거든 법답게 받아 지키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거든 나에게 묻거나 지혜있는 수행자들에게 물어라. (중아함경)

불법은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은 불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불법과 세간법은 서로 혼란을 빚는 일이 없으며, 또한 차별이 있지 아니하다. (화엄경)

원한 없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다툼 없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비방 없는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한다. (보장경)

온갖 악 짓지 말고 모든 선 실천하며 제마음 맑게함이 부처님네 가르침이다. (열반경)

불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온갖 언설의 미칠 바가 못된다. 이는 화합도 아니요, 화합 아님도 아니니, 체성(體性)이 고요하여 갖은 모습을 떠났느니라. (화엄경)

믿음이란 게을 보시 듣기 버리기 지혜를 믿는 것이니 이것이 믿음이다. (잡아함경)

스스로 믿고 남을 믿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 더 어렵다. (왕생예찬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이의 백년은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이의 하루만 못하다. (법구경)

관련기사 15면

신병교육대 법당불사 '한창' 15면
'참사람 결사' 특별법회 연다 14면
성북동에 茶도량 생겼다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사찰환경 수호결의 3천여 스님 모인다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대회 22일 조계사서

"사찰환경 파괴, 더 이상 좌시할수 없다."

전국에서 자행되고있는 사찰환경파괴 및 불교관련 악법에 대한 불교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스님들이 결집된 불교계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스님이 참석하는 '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5개 전국교구본사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지자체 이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찰환경 파괴 저지와 사찰환경권 보장 △전통사찰의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불교관계 국가법령의 조속한 개정 및 철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실천을 천명한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정부를 향한 불교계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전국교구본사회는 교구본사주지 및 소임자, 말사주지(공칭 8백개),화인대중(1천여명),종단관련 법인산하(선학원, 대각회등), 타종단(보문종) 스님등 3천여명을 동원한다는 방침아래 자료집발간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재)선학원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이번 결의대회는 명실상부한 불교계 초유의 승려대회가 될것으로보인다.

총무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사찰환경분쟁이 전국에서 50여건 진행중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협의중인 전사법 농지법 건축법등 불교관계법령개정이 정부측의 관심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어 불교계의 뜻을 천명하기위해 이번대회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찰환경보존을 위해 전문가 15인으로 (가칭)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이달말경 구성한다. (이준엽 기자)

◇지난 5일 20년만에 석굴암 내부가 공개되면서 내부 돌뿐이니라 본존불 왼쪽 무릎 아래에도 7군데의 균열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석굴암 본존불도 '균열'

20년만에 공개…관리국 "정밀진단 의뢰"

석굴암(국보 제24호) 내부 돔에는 길이 2.3~5m, 두께 0.5~0.8mm의 3개의 균열이 있으며, 본존불 왼쪽 무릎 아래에서도 7군데의 균열과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 문화재관리국이 석굴암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64년 제4차 석굴암보존 공사를 마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석굴암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균열이 확인된 곳은 당초 제기됐던 석불 동쪽 외에도 북쪽과 서쪽부위에 각각 길이 2.3m와 4.4m(폭 0.5mm)의 균열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본존불 왼쪽 무릎 아래에는 길이 1m, 폭 0.5mm, 연꽃받침과 왼무릎의 접합부분의 30Cm등 모두 7군데의 균열과 백화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내부 돔의 균열은 인정했으나, 본존불 무릎 아래의 균열과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배포된 보수현황자료에는 물론 이날 참석한 문화재관리국의 관계자 역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고고학회, 경주역사 '건천' 지지

경마장 철회 촉구도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는 지난 1일 '경주 고속철도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건천면 방내리에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고학회는 성명에서 "경주역사의 위치로 건천읍대를 지지하는 것은 경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고속철도 경주역사가 내남면에 설치될 경우 발생할 경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의 파괴는 매장문화재 및 개의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고학회는 또한 2일에도 경주 경마장 건설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적도시에 경마장을 짓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화파괴 행위"라며 경마장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건교부 의뢰로 경주노선 토목작업을 벌이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에는 문체부와 건교부 경주시 추천위원 17명이 참가했으며, 추천위원들은 역사 위치와 관련 건천면 방내리와 내남면 덕천리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관련기사 3면)

혜암스님 방장사표 반려

조계종 123회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1일 제123회 정기종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4면)

종정감사와 중앙종무기관감사에 이어 7일 속개된 중앙종회는 혜암스님 방장사표를 반려했다. 종회는 97년도 예산심의 건, 원로의원 추천의 건, 종법 제 개정등 23개항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진관스님 구속 항의 종회·국제사면위 등

진관스님구속 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진관스님 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인권운동시랑방에 보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대한민국 불교인권운동가의 체포'라는 제하의 서한을 통해 "진관스님은 단지 양심적인 인권활동 및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비폭력적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구금된 것"이라며 한국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또한 조계종 종앙종회(의장 설정)도 지난 5일 '진관스님석방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종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종단과 종회의 명예에 중대한 위해"라며 진관스님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진관스님구속 진상규명 및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10월 25일 동국대에서 진관스님석방촉구 및 민주기본권수호를 위한 시국법회를 봉행하고, 조계사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권우치 강화 해운사주지: (2구좌) △김무구 도광사스님: 부산 연학초등(1구좌) △성공 양산 악천사스님: (1구좌) △박용규: 울산여고(1구좌) △송만윤: 삼일여고(1구좌) △남궁선: 익산중·익산종고(2구좌) △채진연: 포항 황도여중(1구좌) △심성수련 자원봉사 선생님(한진희 박병림 이문갑 전혜숙 조명희): 서울 남성중(1구좌) △이동기: 부산 금정중(2구좌)

(11월7일 현재 총 527구좌 접수)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 (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지역 학교·출신 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현대불교신문사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